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오늘날의 건강한 일터 역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한 산업보건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소중한 결실이다. 우리의 역사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이룩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상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영총괄이사

추석 연휴, 황토길 조성으로 유명한 계족산 산행 중 붉게 익은 대추를 보았다.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단순한 열매가 아닌 여름 내내 모진 태풍과 폭염을 견딘 후에야 맺어진 값진 결실이라 생각되었다.

오늘날의 건강한 일터 역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한 산업보건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소중한 결실이다. 우리의 역사는 진폐가 발생하는 광산, 열사의 용광로 그리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과 연구실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이룩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꾼 노동환경, 산업보건 분야도 변화에 적응해야

우리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지적 유행으로 종료되었을 만한 질병들이 이제는 짧은 시간 내로도 전 세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이제는 삶의 기반인 일하는 공간에서도 전염병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수업 등 다양한 방역 조치가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되었다. 기업들도 새로운 형태의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로 인해 보편화된 원격·재택근무는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을 가져왔고,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기업은 고객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기 한결 쉬워졌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자료로 소비자의 니즈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인지한 기업들은 기업구조를 빠르게 바꿔 나가고 있다. 이제 근무 공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졌다. 일하는 환경이 변하면서 전통적인 산업보건 시장도 변하고 있다. 기업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도 변해야 한다. 산업보건이야말로 작금의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해야 하는 분야이다.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같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수업 등 다양한
방역 조치가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되었다.
기업들도 새로운 형태의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산업보건 전문가들, 새로운 산업보건 시대를 준비해야

최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본래 취지대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재직하며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만이 산업보건 담당자를 채용하여 산업보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이 직접 고용한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재의 대행제도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확답을 내릴 수는 없다. 대행의 경우, 산업위생, 산업간호, 산업의학 등 종합적인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안전·보

시대적 위기 속에서 경제발전과
노동자의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새로운 산업보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전통적인 산업보건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어느 특정 전문분야만 관리될 수 있어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리에서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 속에서 경제발전과 노동자의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새로운 산업보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전통적인 산업보건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산업현장에서 방역과 산재예방을 위해
온힘을 쏟고 계신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응원한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산업보건을 기반으로 일차보건의료 체계 정립 나서야

정부는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정립하려 그동안 애써왔으나 아직까지도 본 체계는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데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한다는 정의를 담고 있다. 즉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국가 보건의료 체계와 접촉하는 것이 첫 번째 수준이며 지속적인 보건의료 과정의 첫째 요소다.

일차보건의료 체계 정립이 과연 풀지 못할 과제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산업보건 서비스는 이미 통합적이고 기능적이며 상호 지원하는 의료 체계에 의해 50여 년간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일부 의료법과 제도적인 문제만 잘 협의된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산업보건을 기반으로 한 일차보건의료의 심화 발전과 실행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

코로나19로 산업현장에서 방역과 산재예방을 위해 온힘을 쏟고 계신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응원한다. 장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